

광부품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



▲ 정진호 소장

먼저 '광학세계'의 창간 10주년을 모든 광학인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싶습니다.

1999년은 광학회가 창립된 지 역시 10년이 되는 해이며 광학회를 출범하는 총회에서 몇몇 렌즈관련 엔지니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렌즈설계자 협의회가 건실하게 발전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1999년은 우

리 광학인 모두에게 여러 가지로 기쁨을 주는가 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를 시작하며 광학부품 회사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광산업으로서의 광학제품산업과 부품산업의 지나온 과거 동향을 점검하며 미래를 설계하여 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광학회사는 크게 시스템회사와 부품회사로 나누어지고 시스템회사는 광학제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회사와 전자부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회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의 변화로서 두드러진 것은 두 회사의 구별이 거의 없어진 상태인 점입니다. 광과, 전자를 통합한 광전자의 개념을 광산업

으로 규정하고 전자회사에서 광학제품을 취급하던 광학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취급하던 동종의 업체로 구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전 일본의 경우 니콘, 올림푸스, 캐논, 팬탁스, 미놀타 등 카메라 회사를 광학회사로 보는 시각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니, 마쓰시다, 히다치 등 유수의 종합메이커에서 수도 없는 광학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광학산업에 있어서는 대한광학과 같이 순수 광학메이커로 출발한 회사들의 퇴조를 시작으로 외국 카메라 전문메이커를 동반한 그룹회사의 카메라시장 진입도 퇴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전자회사의 광학제품 생산이 자리매김을

하였고, 순수광학부품회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즉 대기업으로서의 종합시스템회사와 중소기업으로서의 부품회사군으로 양분되어 있는 구도를 이루어 왔습니다.

부품회사군을 세분하면 종합시스템메이커와 동반/협력 관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군과 자사브랜드를 가지고 광학계를 대량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주문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순수부품회사군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회사는 생산방식 형태로 구분한다면 소품종 대량생산 회사와 다품종 소량생산 회사로 양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 10년은 상기와 같은 광학회사 구분의 변화와 함께 광관련 제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 카메라 및 렌즈류, 흑백복사기, 쌍안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Compact disk, 광자기disk, 고선명 액정투사 TV, 캠코더, 우주용 광학계, 반도체용 스테퍼, 레이저현미경, 자동차용 Display, 레이저가공기, 의료용기기, 광통신제품, 컬러(디지털)복사기, 스캐너, 팩스, 현상기 등 무수히 많은 광학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년 내에는 Compact disk가 DVD로 거의 대체되는 것을 시작으로 광

산업 제품의 무수한 변화와 홍망성채 속에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와 3차원 영상용, 광정보통신용, 우주용 광제품/부품의 도약 등을 접쳐 보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이 광학 부품업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광산업 제품군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광관련 제품에 대한 부품의 틈새에는 산업용 광학장치용 부품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국내 몇몇 실력있는 광부품 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여 왔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기술선을 적절히 이용한 수출로 기본 생산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력의 기반을 다지며, 동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부품수주를 발판으로 변화의 방향을 읽는 등 자체 기술을 확보하여 수요업체로서의 대기업을 리드하여 공동개발에 이르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 온 회사들은 IMF의 현 시국에서도 휴일을 잊고 생산과 개발에 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광학기협회는 회원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기술의 교류 등에 많은 역

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광학세계'의 역할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정업체에 근무하는 모두가 경쟁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노력하여 왔고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학기협회의 역할은 뿌린 씨앗에 불과하고 그것을 키워나갈 책임은 우리 모든 광학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를 위하여라면 국가 간에도 통합의 불력을 형성하는 오늘의 시대에 국내 광학업체들의 진정한 경쟁상대는 바다 건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0여년간 국내 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일등공신은 청주대학교 광학공학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배출하여 온 인재들이 곳곳의 광학회사에서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국내 광산업계의 기술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회사의 간부로 성장하여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학의 교수님들께 광학인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맺습니다.